메르스·北 불참 통보 악재 딛고 달아 오른 열기

광주U대회 참가 선수단 연일 최대규모 기록 경신

22일까지 1만3289명 등록

입장권 매진 사례도 잇따라

메르스와 북한 선수단 불참 소식 등 각종 악재속에서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참가 등록 선수단이 연일 최대 규모를 뛰어넘는 등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회 입장권 매진 사례도 잇따르면서 메르스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성공 개최의 희망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개인 엔트리(entry·참가자 명단)가 공식 마감된 지난 3일 115개국에서 1만926명이 등록했다. 이후 추가 등록에 들어가 지난 10일 17개국 1386명이 추가 등록했다. 이 기간은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대거 확산한 시기로, 신청 규모는 132개국 1만231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3년 러시아 카잔 대회 1만1759명 보다 553명이나 많은 것이다.

이후에도 지난 20일 144개국 1만3237명, 22일 오후 3시 현재 145개국 1만3289명 등 연일 선수단의 등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26일 선수촌 개촌을 앞두고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선수단이 500명을 넘어선 국가의 선발대들이 속속 광주로 들어올 예정이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이미 입국을 마치고 선수단 맞이를 준비중이다.

대회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입장권 매진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경기의 경우 매진이 됐거나 매진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 있는 시민들은 입장권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현재 매진종목은 탁구(7월 10, 11, 12일), 배드민턴(7월 12일(준결승, 결승), 유도(7월 5일), 양궁(7월 8일) 등이며, 탁구(7월 13일), 배드민턴(7월 11일), 유도(7월 4일), 양궁(7월 7일), 수구(7월 11일·준결승), 수영 (7월 4일) 등도 매진이 임박한 상태다.

입장권은 조직위 홈페이지(www.gwangju2015.kr), 콜센터(1644-9446), 무인발매기(광주시청과 5개 구청 설치), FAX(062-616-4519) 신청, 발권센터 직접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 등록을 한데다 메르스도 진정세로 접어든 만큼 대회 흥행을 위한 준비에 모든 조직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24시간 안심 청정 대회'를 목표로 인천공항 입국에서 광주 체류, 출국까지 철벽 방역 대책도 수립중이다. 한편 광주U대회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와 전남·북 등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겉으론 정치적 이유 속으론 메르스 때문?

北 U대회 불참 통보 배경

북한이 22일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일단 북한이 밝힌 불참 이유는 남측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결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남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가 북한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중요 이유로 꼽았다.

북한이 이번 대회를 불참한 이유는 사실상 정치적 이유와 함께 남측에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작년에도 에볼라 전파를 우려해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 해외를 다녀온 모든 고위간부를 포함한 전 주민의 21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약품으로 북한으로서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메르스 때문에 이번 대회 불참을 통보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체면상 메르스를 불참 이유로 밝히는 대신 정치적 이유를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U대회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메이저 대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유나 메르스 감염을 더 중시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 메르스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큰 이유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일자리·투자유치…'청년 돌아오는 전남' 기틀

민선 6기 1년 〈2〉 전남도

섬과 숲 활용 지역 경쟁력 키우기…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

100원 택시·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농촌 복지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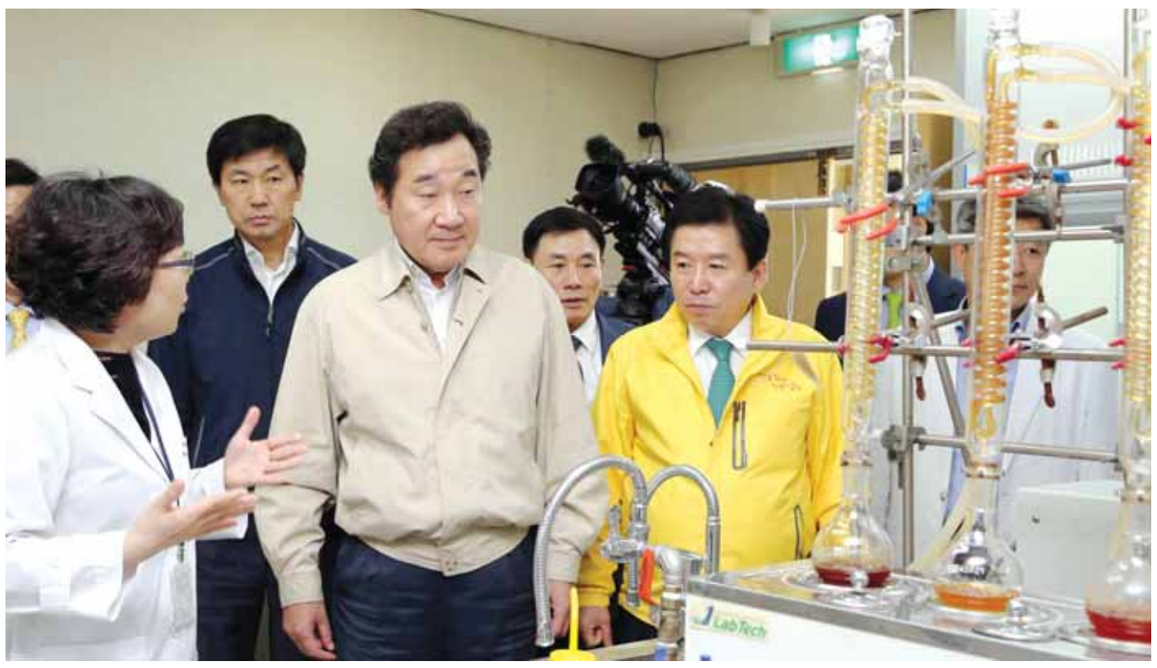
민선 6기 이낙연호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목표로, '가고 싶은 섬'과 '숲 속의 전남'을 브랜드 시책으로 내놓았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섬 주민대학' 같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사업 이해를 돕고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다양한 섬 특산품 마케팅과 생태·문화 체험상품을 발굴·운영해 방문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속도를 내기 시작해 민간 중심의 사단법인 '숲 속의 전남'이 7월 출범을 앞두고 있고 전국 최초로 '나무심기 지원 조례''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숲을 통한 영호남의 교류·화합을 위해 경북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는 '전남도민의 숲', 전남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주변에는 '경북도민의 숲' 조성을 추진하겠다. 북한의 산림녹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병해충 방제나 양묘에 필요한 기술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 노선 확정,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재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부처의 입장 변화를 꾸준히 요청하면서 여론을 지역에 우호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복지 측면에서는 '100원 택시'를 시작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전국 최초 유기농 쌀 100% 도내 학교 급식 공급 등을 실행에 옮겼다.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만들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했다.



이낙연 전남 도지사와 구충곤 화순군수가 22일 오후 화순 농공단지 한국인스팜(주)을 방문, 연구소 김남경 이사(왼쪽)로부터 의약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실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인스팜(주)는 바이오 대표 기업으로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한방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 일본 스미토모세이카(1000억원), 베일러글로벌헬스그룹(2000억원) 등을 포함해 89개 기업으로부터 1조3719억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17일에는 대표적인 국내 제약회사인 (주)녹십자와 오는 2018년까지 1113억원을 화순공장에 증액 투자해 백신 완제품 제조공장을 건립해 인력 57명을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도정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큰 틀에서 전남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민선 6기 전남도가 1년간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방향성 제시'였다. 고령인구의 급증과 청년 인구 감소, 생산력 둔화, 자연생태자원 훼손, 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도민 자긍심 하락, 인근 시·도와의 불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투자 미흡 등 '전남의 위기' 속에서 현실에 근거한 확고한 미래 비전 제시는 필수불가결했다는 것이다.

민선 6기가 시행하거나 수립한 사업과 정책에도 이러한 고민이 내재돼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성과를 얼마나 가시화시켜 도민에게 '미래 비전'을 인식시킬 것인지가 민선 6기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을 점검하면서 민선 6기 전남도정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국제규모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마련도 고려해볼만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6기의 사업이나 정책의 상당수가 장기적인 노력과 실천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장단기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민선 6기 달라진 도정

공개·공정 평가로 인사 잡음 없애고 적자 F1 중단·무분별 산단개발 메스

이낙연 전남지사는 취임 이후 도정 전반을 아우르면서 지역 통합에도 힘을 기울였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공정'을 토대로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썼다. 조직기강을 다지고 조직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사가 기본관건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가의 공정화와 객관화 방안을 찾았다. 실국장의 주관성이 강하고 비공개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에 상하급자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근무성적평가 서열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실국별 평가 결과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열람이 가능토록 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폐쇄적 평가로 인한 불신요인을 제거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

여성 공무원의 역량 극대화 방안도 추진해 남성 공무원이 거의 차지한 행정, 인사, 계약, 감사 담당 등의 직위에 유경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000억대에 달하는 영암 해남 기업도시 진입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대외적으로는 호남을 하나로 묶는 '상생'을 이슈화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호남 관광프로그램 마련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지역 현안인 청년 일자리를 총괄 지휘하는 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전남의 신성장 동력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정례 모임인 기관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조직 내부를 정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F1에 대해 과감하게 중단을 결정하고, 전남개발공사의 오룡지구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메스를 댄 것도 달라진 민선 6기를 실감하게 해준 사례였다.

2년 차에 접어든 이 지사의 리더십도 공직자, 전문가, 도민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선 6기 정책과 사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견지하되 이에 대한 공직자와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해야만 그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